

전국기능경기대회 아버지·아들·딸이 같은 종목 메달 경쟁 영암 양준철씨 가족

안국산업 불우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남공동모금 '2008 이웃을 사랑하는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안국산업(대표이사 김성수)은 최근 담양에 위치한 '예수 마음에 집'과 곡성 지역 면사무소를 방문, 총 600만원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평생교육 경영자과정 1기 수료식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최근 조선대 경영대학원 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평생교육 경영자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복지시설에 쌀 전달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도중)는 추석을 앞둔 21일 노인복지시설인 곡성군 겸면 흥북리 흥산보금자리를 찾아 사랑의 쌀 25가마를 전달했다.

광주 동구 치매예방 경진 우수상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세계 치매의 날(21일)'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치매예방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형기자 khk@kwangju.co.kr

인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신준호 ▲전남본부장 김종철 ▲광주본부 경영전략팀장 차경렬 ▲인사노무팀장 김한근 ▲안전환경팀장 임진섭 ▲차량팀장 신대연 ▲광주역장 박민석 ▲광주기관차 승무사업소장 김성철 ▲전남본부 안전환경팀장 이신호 ▲영암팀장 박영광 ▲차량팀장 윤종하 ▲순천기관차 승무사업소장 고재철

두번 솔로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적 마케팅 시스템 프리드

연대총합상조

가맹문의 1566-4499

가맹문의 1566-4499

“나전칠기 전통 잇는 자부심 절대 양보 못해요”



아버지 양준철씨



아들 성근씨



딸 성미씨

22일 개막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아버지, 딸, 아들 등 한 가족 3명이 같은 종목 메달 석권에 나서 화제다.

주인공들은 영암에서 월암공방을 운영하는 양준철(50)씨와 딸 성미(23), 아들 성근(22)씨.

이들이 한 가족 같은 종목 진기록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전남 지방경기대회에서 양씨가 1위, 성미씨는 2위, 성근씨가 3위를 차지해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낸 때문이다.

아버지 양씨는 14살이던 1974년 나전칠기에 입문한 뒤 36년동안 한우물을 파고 있는 장인이다.

양씨는 “나전칠기는 작품을 만드는 인간문화재와 상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데 나는 상품 분야에서 ‘정상’으로 통한다”며 “손님이나 이 분야 기술자들은 모두 내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성미씨와 성근씨는 중학교만을 졸업한 뒤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나전칠기 공예를 전수받고 있다.

공방에서 기술을 배우려는 예비장인들의 맥이 끊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공예를 배우고 있는 이들은 공예장인들 사이에선 미래의 장인으로 불린다.

아버지 양씨는 “최고가 되려면 일찍 시작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열정이 식거나 재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비교적 덜 늦은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매는 가업을 잇겠다는 계획을 포기할 뜻이 없으며 그간 보지 못한 나전칠기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틈틈이 일본어를 익히면서 일본 유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씨는 “아들과 딸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따낸 상장이 70여개”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전국대회에는 20~30년간 숙련된 기능인이 즐비하기 때문에 (모두 입상하는) 성적이 나올 리는 없다”고 말했다.

아들 성근씨도 “30년 된 아저씨들이 많아서 목표라는 걸 말할 것까지는 없다”며 “그냥 과제를 완수해서 이 정도로 어린 나이에 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희망이고 많이 배우는 게 목표”라고 거듭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오련 선배 뜻 이어받아 대한해협 건너겠다”

제주~마라도 완영 다음 카페 동호회원팀

“조오련 선배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에는 꼭 독도까지, 아니 대마도까지 헤엄쳐 건너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서귀포시 중문포구에서 마라도까지 약 27km를 헤엄쳐 온 완영자 8명은 마라도 선착장에 태극기를 걸어두고 잠시 묵념을 하며 지난 8월 타계한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을 추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해협횡단팀(cafe.daum.net/avavt)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서귀포시 중문포구출발, 7시간여 만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까지 약 27km를 헤엄쳐 건너는 ‘대단한 도전’에 성공했다. 2006년부터 매년 마라도와 송악산, 마라도와 고산 사이 바다를 수영으로 횡단해 온 이들이 올해는 마라도-중문 코스에 도전한 것. 대원 모두의 우상이었던 조오련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완영에 성공해야겠다는 각오는 더욱 굳세졌다.



1년 전부터 함달에 한번씩 모여 해협횡단을 준비해 온 이들 가운데 8명 중 4명은 이미 철인3종경기를 완주한 ‘철인’이고, 2명은 현지 수영강사지만 나머지 2명은 일반 동호회 회원이다. 서울과 부산, 강원 등지에서 모인 이들은 서울시립대 생활체육정보학과 선후배 사이인 막내 오세형(26), 송호준(26) 씨부터 최고령 서상철(54) 씨까지 사는 곳도 나이도 서로 다르다.

/연합뉴스

완도 군민이 군수에 운동화 선물한 까닭은

김종식 완도군수가 군민들로부터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받아 화제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면 변영회(회장 박종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지역발전에 애쓴 김종식 군수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변영회 회원 10여 명은 이날 군수실을 방문해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김 군수가 자랑스럽다”면서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완도건설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의미로 ‘목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현 변영회장은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라웠다”며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역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는 항상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고금면 변영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소중한 선물까지 받아 감사하다”면서 “600여 전 공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살



기 좋은 완도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앎고자 주민이 1~2가구밖에 안 되는 ‘외딴섬’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원도=정은기자 ejchung@

산악인 故 고미영씨에게

11년만에 돌아온 1천 유로

1998년 佛 암벽등반 2등

보관 佛 의사 전달 전화

지난 7월 히말라야 낭가파르브(8천125m) 정상에서 내려오다 추락사해 유명을 달리한 여성산악인 고(故) 고미영씨가 10여년전 산악등반 대회에서 받았던 상금이 죽음 이후에야 주인을 찾게 됐다.

21일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유족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다. 프랑스의 현지인 의사가 유족 연락처를 물어왔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는 지난 1998년 프랑스에서 열린 스포츠를 라이밍 대회 당시 2등 상금으로 고인이 받았던 1천 유로(현재 환율로 한화 약 177만원)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고인은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선 2006년 이전 10여년간 세계적인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 활약했다. 이 프랑스인 의사는 그동안 상금을 전해줄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프랑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유족의 연락처를 문의했고, 현지 대사관은 다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은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1998년 프랑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은 기억했지만 상금이 얼마였고, 이 상금이 왜 프랑스인 의사에게 맡겨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전화를 받은 고인의 언니 미란씨는 “미영이가 작은 일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전화를 받고 놀랐다”라며 “미영이의 상금을 유족에게라도 돌려주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낯선 땅에서도 미영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정후채·박성희씨 장남 육석군 후인반려·관리게씨 차녀 후인티 디엠 까우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 상록예당홀 4층(잠미홀)

▲강희재·손정애씨 막내 성주군 김양식(쾌남)·김점순씨 차녀 유경양=27일(일) 오후 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20회 동창회(회장 박재우) 월례회=22일(화) 오후 7시 북구정 앞 오리명가. 062-262-4488.

▲복성중 제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화) 오후 7시 흥부와 놀부. 062-373-3688.

▲광주고등학교 31회 동창회(회장 문재평)=23일(수) 오후 7시 상

무지구 진미청국장. 062-655-1910.

▲칠칠회(국군광주 병원 퇴직 군무원 모임·회장 김창호) 모임=25일(금) 오후 6시30분 호남동 미송식당. 062-223-6322.

▲옥과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추진위원장 김계중)=10월2일(금) 오후 4시 옥과초교 대강당. 011-601-4090.

▲대촌중 제11회 동창회(회장 송운근) 추석 정기총회=10월2일(금) 오전 11시 모교운동장. 011-610-4706.

향우회

▲재광 순창향우회(회장 공병철) 2009년 추계아유회=26일(토) 오전 8시 광주역 앞 버스출발, 부부동반으로 무주적상산. 010-3624-0030.

▲제88회 지산지역 한미당축구대회(지산체육회장 이춘범)=10월3~

4일(개회식 3일 오전 9시30분) KT &G 광주제조창 운동장.

종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 종친회(회장 정학균) 9월 월례회=23일(수) 오후 6시30분 목포동초등학교 위 휴산협약소. 061-274-722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해전 재광 영광군 향우정학회(이사장 이형만) 정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해전빌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로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선풍무로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토요문화교실 ‘우리나루 바로알기’ 수강생 모집=26일(토) 오전 10~12시 중의공원 일대에서 전통수목과 야생화 현장체험 및 탐구학습. 접수순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풋골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발로 볼을 차 흙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임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부음

▲서순례씨 별세 백승기·춘옥·옥진·만자·옥희·윤희·영희씨 모친상 승철(인태도)씨 조모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홍이순씨 별세 이동영·동덕·동주·동명·동채·홍남·동례·명순씨 모친상=발인 23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이정숙씨 별세 이원희(사업)·정희(한양의원 원장)·성희(목사)·준희(이준외과 원장)·명희(사업)·복자씨 모친상 박영일씨 빙모상=발인 23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양현우씨 별세 형순·석순씨 부친상=발인 23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송철준씨 별세 명달(전국택시 공제조합 광주지부)·행곤(현대리바트)·명숙(미술학원)씨 부친상 장미희(동신고등학교)·이명신씨 사부상 박한상(전국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씨 빙부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양우례씨 별세 이봉규·동규·철림·성림·경자·경숙씨 모친상=발인 22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영희씨 별세 유영석(해양연구개발)·영선(조선대병원)·수미·수진씨 모친상=발인 2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중욱씨 별세 상천·영천·재임·정임씨 부친상=발인 22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연자씨 별세 김중필·종석·보현·종복씨 모친상=발인 2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